

광주·전남도 일제히 대선 출정식…유세전 돌입

선택! 6·3 대선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 정당은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일제히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광주 선대위는 이날 오후 5·18 민주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교체를 향한 총력 선거 체제 돌입을 알리는 출정식을 개최했다.

출정식에서는 ‘내란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되살리자’는 의지를 드러내고, 5·18 정신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정권심판의 불꽃을 다시 피워 올리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출정식에는 양부남 광주선대위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광주선대위 상임 선대위원장과 박지연 중앙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및 정청래 중앙선대위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전남위원장, 광주선대위 선거대책위원장단과 당원, 광주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양부남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6월 선거는 내란종식·민생회복과 경제 성장·국민통합 및 사회 갈등 해소라는 3대 과제를 완수할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뽑는 날”이라며 “이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연 중앙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전남 경쟁투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환생해서 돌아왔다고 생각 yourselves”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성공했듯 12·3 내란을 극복한 이재명 후보도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중앙선대위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전남위원장은 “내란 종식, 정권교체를

더불어민주당 “내란세력 척결·진짜 대한민국” 호소

국힘·민노당도 발대식…본격 선거운동 체계로 전환

위해 압도적 지지를 해달라”고 밝혔다.

출정식에 참석한 광주시민들은 “80년 5월 부모님들이 은뎌으로 세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평범한 일상이 가능한 나라를 광주의 힘으로 세우자”고 말했다.

광주 선대위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에 맞춰 광주 전역 골목골목을 누비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근 인사를 비롯한 거점 유세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선대위는 김문수 후보가 뒤늦게 최종 후보로 확정된 만큼 대규모 유세 대신 발대식을 개최하며 신속한 선거운동 체계 전환에 돌입했다.

국힘 광주시당은 이날 오후 광주역 광장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진행했다. 김정현 시당위원장의 출정사를 시작으로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지지자 및 유권자 앞에서 큰절을 올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중노동당 광주시당도 ‘차별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이날 5·18 민주광장에서 민주노동당 등 노동계 연대 단체와 함께 출정식을 열고 권영국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 전남도당 선대위가 이날 오전 순천 아랫장에서 대선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첫 거리 유세에 나섰다.

‘전남도민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출정식에는 1000여 명의 도민과 당원들이 함

께했다.

출정식은 선대위의 핵심 기조인 ‘정청’의 의지를 담아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록할 ‘경청노트’ 전달식과 도민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 시민은 “따뜻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요청했고, 20대 대학생은 “내란의 혼란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꼈다. 가족이 행복하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주철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용광로처럼 하나된 선대위가 포용으로 함께하고, 경청으로 동행하겠다”며 “전남이 앞장서 대선에서 꼭 압승을 거둬 호남 중심의 제4기 민주정권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선대위는 출정식을 기점으로 전남 22개 시·군을 돌며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전남에서 투표율 85%, 득표율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조직과 인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후보 압승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이날 0시 첫 유세지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선택해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이후 보는 ‘이공계 출신’이라는 이력을 내세우며 산업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수출과 국가 성장을 이끌었던 2차 산업단지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국민의힘 광주시선거대책위원들이 12일 오후 광주역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열고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광주시선대위



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21대 대선 토론회 ‘18·23·27일’ 확정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오는 18일과 23일, 27일 세 차례로 확정됐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1차 토론회는 오는 18일 ‘경제’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

다. 2차 토론회(사회)와 3차 토론회(정

치)는 각각 23일과 27일에 열린다. 세 차례의 토론회는 모두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두 시간동안 이뤄진다.

공식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제4항에 따라 진행된다. 초청 기준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시·도의원 선거, 자치구·시·군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전 30일 내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이다.

이성우 기자 solee235@

전남도,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로 부정 유출 막는다

20일까지 안정적 식량 수급·양곡 품질 유지 최선

전남도는 20일까지 정부양곡 보관 창고와 가공공장을 대상으로 양곡관리 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2025년 상반기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는 정부관리 양곡의 정확한 재고량 파악으로 재고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와 부정 유출 등의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실시한다.

이번 재고조사는 도내 949동 보관창고와 25개 가공공장의 재고량 31만 6000t을 대상으로, 수송 중인 정부양곡을 포함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이 실측 조사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대한곡물협회 등

유관기관도 참여한다.

전남도는 조사과정에서 보관수량과 양곡 품위, 보관시설 안전 등 전반적 실태를 함께 점검하며 정곡 보관창고와 가공공장에 대한선 인수도 여부 및 가공지시서 일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지난해 조사에선 품위 우려 18동, 환경경비 불량 11동, 적재불량 16동 등을 적발해 조치를 취했다. 올해 재고조사 결과 부정 유통이 우려되는 창고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고, 양곡변질이나 관

리 부실창고는 양곡의 수송(이교와 출고) 등 조치도 함께할 방침이다. 기온 상승에 따른 적기 훈증소독을 해 창고 중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정부관리 양곡 재고조사는 재고량 파악뿐 아니라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 재고조사와 안전보관 점검을 통해 정부 양곡 품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 임산부·출산가정에 전남 농산물 지원

선착순 1000가구 대상

광주시는 임산부와 올해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위해 전남지역 지리적표시 농산물을 무상 제공하는 행사를 12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이 행사는 임산부와 출산가정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재)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 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이며, ‘광주아이키움(www.광주아이키움.kr)’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쿼지를 풀고 임신확인서, 아기수

첩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남지역 지리적표시 농산물 5종 세트(2만 원 상당)를 무상 제공한다.

지원 품목은 전남의 대표 지리적표시 농산물 5종 세트로 영랑 고춧가루, 보성 울벼쌀누룽지, 여수 돌산갯김치, 곡성 멜론, 영광 모시잎송편 등이 무작위 조합으로 구성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 배송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달10일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임산부 대상 지리적표시 농산물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행안부,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8일 완도군에서 열리는 ‘섬의 날 기념행사’를 기념해 ‘제6회 섬의 날×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2025년 상반기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내달 30일까지 섬을 보유한 전국 28개 시군 대상의 고향사랑기부자(일반기부자) 가운데 40명을 추첨해 ‘제6회 섬의 날’ 축하공연 입장권과 체험 행사권, 행사 기간에 완도군 소재 호텔 숙박권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톡톡 튀는 청년 아이디어로 섬·해양관광 활성화

도, 18~45세 대상 26일까지 콘텐츠 발굴 공모전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오는 26일까지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전남 섬·해양 특화자원을 활용한 여행상품 개발, 관광기념품, 미식 상품 발굴을 위한 ‘2025 전남 섬·해양 관광 콘텐츠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에는 18세부터 45세(2025년 1월 1일 기준)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연안 16개 시군의 섬·해양 자원을 활용한 신규 관광 콘텐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 주제는 △캠핑, 차박, 야캉스 등

체류형 테마여행 코스 △지역 명소나 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기념품 △지역 식재료와 특산품을 활용한 미식 상품 △패키지·패고를 활용한 프로젝트, 섬 축제 등 지역 이벤트 △관광정보 제공 및 방문객 확대를 위한 영상이나 책자 등 홍보콘텐츠 등이다.

총 2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최우수상 1건 150만원, 우수상 2건 각 100만원, 장려상 7건 각 50만원, 입상 10건, 각 3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시상금뿐만 아니라 7월 중모집 예정인 ‘2025 청춘어람 육성사업’ 참가자 선발 시 우선권이 주어지며,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참가를 바라는 청년은 전남관광재단 누리집(www.iinto.or.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hyejun@iinto.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관광재단 기업육성팀(061-802-21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 청춘어람 육성사업은 2021년 최초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7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했다. 현장활동·멘토링·시범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청년의 취·창업 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 어린이집 급식소 식중독 예방 강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원장 안양준)은 어린이집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조리식품과 간식류 등을 대상으로 16일까지 5일간 식중독균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유아는 성인보다 식중독균 면역력이 약하고, 단체생활을 통해 감염이 쉽게 확산할 수 있어 식품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어린이집 급식소 수거검사는 시군 위생부서의 위생 지도·점검과, 실제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 검사 등으로 이뤄진다. 위생상태를 가능할 위생지표군(대장균)에 대해서도 검사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식품과 간식류가 제공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은 신속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긴급 통보시스템’에 등록 및 보고해 즉시 급식 중단과 폐기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